

# 구석구석 복지 실현...민·관·산이 뭉쳤다

## 여수시 복지정책 지역맞춤형 추진

여수시가 지역맞춤형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여수시의 경우 주민이 많은 도심과 교통이 다소 불편한 섬 지역이 함께 있는 지리적 특성상 지역에 맞는 복지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수시는 민·관이 함께하는 복지정책을 특화하고, 시민이 행복한 복지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민간협의체 401명 참여  
복지도우미 656명 구성  
취약·배려계층 발굴 지원

합동봉사단 섬지역 찾아  
통합보건 의료서비스 등  
‘희망복지 지원사업’ 펼쳐



여수시가 도심과 섬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펴고 있다. 사진은 최근 남면 횡간도에서 진행된 희망의 섬 복지 사업에 참여한 봉사자들이 주민들의 머리 카락을 잘라주고(위), 별 건강관리를 해주고 있는 모습. <여수시 제공>

◇민·관 협의체로 실질적 복지 실현 =여수시는 그동안 민선 6기 출범 이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각 읍·면·동내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힘을 모았다.

시는 기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함께 실질적 복지정책 마련을 위한 27개 읍·면·동내 자원봉사자 등 401명이 참여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했다. 지난해 9월 발족한 읍·면·동 협의체는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회취약·배려계층의 발굴과 보호 등 본격적인 민관 연계 복지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776명의 취약계층을 발굴, 기초수급과 긴급 복지지원 등 행정지원과 공동모금회·종합복지관 등 민간기관의 후원도 이끌어 내는 성과를 냈다.

또 뜻밖의 사건사고로 위기상황에 처한 세대에 긴급 생계지원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 취약계층 특별 보호대책’으로 긴급복지 지원과 가스시설 개선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지역 41개 복지기관 후원을 통해 저소득층 2300명에게 긴급 생활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통장 복지도우미’ 656명을 구성하고 ‘반장 마을살피미’ 4000명도 위촉한다.

자원 봉사자와 1대1 결연을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등을 살필 수 있는 ‘가족플러스 봉사단’도 운영된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실질적 복지 혜택 제공과 투명한 시설 운영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팀도 발족했다. 이를 통해 4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도 할 예정이다.

박정숙 사회복지국장장은 “주민밀착형 복지행정으로 취약계층은 물론 모든 시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다”고 밝혔다.

◇섬지역 ‘희망복지 지원사업’ 시동 =여수시가 섬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중점 사책으로 마련한 ‘희망복

지 지원사업’이 오는 26일 남면 나발도를 시작으로 11월 12일까지 지역내 22개 도서복지 곳곳에 펼쳐진다.

민·관·산 합동 자원봉사단이 추진하는 이 사업은 한국공항공사 여수지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여수지사, 여수노인복지관, 여수전기공사협회, 여수시민지역자활센터, 대한미용사회여수봉사단, 여수동백미용봉사단 등 다양한 민관 봉사단체가 참여한다.

앞서 이들 봉사단은 섬지역을 꾸준히 방문해 전기 안전점검과 보수, 보일러 수리와 도배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펼쳤다.

또 파마, 염색, 커트 등 미용봉사와 어르신 밀반찬 제공, 부식 지원 봉사를 통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섬희망 나눔사업’을 통해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과 보건 의료 서비스, 도서민 영양 지원사업, 문화 복지 서비스 등 지금까지 16개 섬 700여 세대에게 복

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섬주민 건강을 위한 통합보건 의료서비스도 제공된다.

여수시는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섬지역 통합 보건 의료서비스 사업’을 통해 오는 11월까지 10곳의 섬지역 주민 3000여명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의료환경이 취약한 섬지역의 특성상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간기능 검사 등 기초혈액 검사와 이동보건교육으로 주민들의 의료 수준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통합 의료서비스는 지난 3년 동안 섬주민을 위한 의료봉사에 적극 참여한 관철전문병원 여수백병원과 여수한방병원 의료진이 양·한방 의료서비스를 펼친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민·관이 함께하는 복지서비스 강화 정책으로 30만 시민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여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GS칼텍스 9년째 섬 지역 학생 지원

금오도 여남중·고서 ‘2015 원어민 영어교실’ 개강



영어강사 존 맥클린톡(앞줄 가운데)씨와 GS칼텍스 관계자, 여남중·고 학생들이 지난 18일 열린 2015년 GS칼텍스 도서학교 원어민 영어교실 개강식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 국가산단내 대표 정유사인 GS칼텍스(대표이사 허진수 부회장)가 9년째 여수 섬지역 학생들을 위한 사랑나눔을 펼치고 있다.

GS칼텍스는 지난 18일 여수시 남면 금오도 여남중·고교에서 ‘2015년 GS칼텍스 도서학교 원어민 영어교실’ 개강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GS칼텍스 도서학교 원어민 영어교실’은 도서지역 학생들보다 외국인 학습 여건이 좋지 않은 섬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GS칼텍스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대표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비렁길’로 유명한 남면 금오도의 여남중·고등학교에서 열린 이날 개강식에는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GS칼텍스 관계자, 원어민 강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인 영어강사 존 맥클린톡(42)씨는 내년 2월까지 주중 금오도, 화태도, 연도, 개도, 안도 등 5개 섬내

여남초·중·고, 연도초, 화정초, 개도중 등 10개 학교를 순회하며 160여명의 초·중·고 학생들을 가르칠 예정이다.

특히 맥클린톡씨는 지난 2008년 금오도로 주소를 옮겨와 거주할 정도로 학생·주민들과 함께 잘 어울려 ‘섬마을 선생님’으로 통하고 있다. 지금까지 2100여명의 초·중·고 섬마을 학생들을 외국인인 상대로 자신있고 당당하게 영어로 대화하는 법을 배웠다. GS칼텍스는 영어강사의 인건비를 비롯한 영어수업 운영비와 기자재 구입 등 소요 예산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다.

여남중 최선영 영어교사는 “섬 지역 학생들이 GS칼텍스의 소중한 나눔으로 도시지역 못지않은 원어민 영어교육을 받으며 영어 실력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지역 대표기업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나눔은 당연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헌 사업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여수시, 100개 기업유치 본격 시동

싱가포르 그룹 초청 설명회

여수시가 민선 6기 주요 시정 목표인 ‘100개 기업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여수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 등을 위한 100개 기업 유치를 ‘과(科) 1기업 유치’ 운동을 벌이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민선6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16개 기업과 43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일자리는 모두 862개가 신규 창출됐고, 투자 유형별로는 관광·숙박 4건과 제조업 9건, 신재생 1건, 기타 2건 등이다.

시는 민선6기내 100개 기업과 총 4조원대 투자협약을 체결해 28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1실과 1기업’ 투자유치 운동을 연중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일 시정 재난 종합상황실에서 싱가포르 알리라홀딩스 인터내셔널

그룹 관계자들과 호텔개발·부동산 투자회사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기업 초청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시는 전 직원 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위해 정례회 투자유치 홍보 동영상 상영과 투자유치 역량강화 가이드북을 제작, 배부하는 등 ‘과1기업 투자유치’ 운동을 지속 추진해 갈 방침이다.

여기에 부서별 투자유치 총괄담당자를 지정해 투자유치 기업정보 제공과 투자환경 설명회, 투자상담 등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주철현 시장은 “100개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모든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기업유치 좋은 도시 조성으로 시민이 행복한 ‘지역경제 활력도시 건설’을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희망’은 광주일보사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입니다.

지방지사		시내지국	
광신 0621944-0444	남원시 0631626-1601	광천 966-8375	
군산시 0634467-2500	순창군 0631653-0444	남광 222-9440	
정읍시 0631531-5544	서울보급소 021313-5962	남부 882-0175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